

기독교 역사학의 기본원리와 그 과제

The Fundamentals
and Task of Christian History

조 호 연

I. 서 론

기독교와 역사라고 하면 두 가지의 상반된 생각이 있다. 하나는 기독교 자체가 역사적으로 성립된 종교요 성서의 상당한 부분이 역사임을 감안할 때, 양자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 반면에 학문적인 역사에는 가급적 어떤 선입견을 배제시켜야 하고 학문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 선입견으로부터 벗어났느냐 하는 정도에 비례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래서 역사는 '신학의 시너'의 위치로부터 벗어나서 독자적인 소리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게 되었다. 그러므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독교와 역사에 관한 태도에 있어서도 구분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먼저 개인적으로 기독교인임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적인 가치를 전제한 역사해석에 단호히 반대할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도 단일한 견해를 가진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역사성은 인정하면서도 세속사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할에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세속사는 방기된 부분으로 존재한다. 반면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전혀 기독교적인 특징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역사의 동력과 목적에 대

한 견해에 있어서 기독교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과 동일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스스로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기독교적인 초월성이나 하나님의 주권성은 조금도 보이지 않고 다만 추상화되고 판념적인 하나님 개념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역사학이 단순히 사실발견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만약 역사학이 콜럼부스가 언제 미대륙을 발견하였는지, 그리고 그가 어디에 상륙하였는지만을 규명하는 학문이라면, 그렇게 규명되어야 할 사실은 너무나 많아서 정리하는 일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다. 따라서 역사학에서는 어떤 사실을 선택하고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하는 가치문제가 반드시 개입하게 된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결단이 가치관의 변화를 전제로 한다면 그에 수반하여 역사를 보는 눈도 필연적으로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과연 기독교인의 역사해석은 기존의 역사해석과 어떤 관련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과 완전히 결별하여야 하는가? 이 문제는 우선 역사철학에 대한 기본적인 구분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드레이의 구분처럼 역사철학에는 사변적 역사철학과 비판적 역사철학이 있다. 전자는 역사가가 실제로 볼 수 있는 시야를 넘어서서 역사적 사건의 배후에 작용하는 힘, 또

는 의미, 유형을 찾아내려는 시도를 말한다. 그래서 이것은 형이상학적 역사철학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한다. 후자는 구체적으로 역사를 기술할 때 생기는 방법론상의 영역으로 사료비판, 사료선택, 역사적 해석 등의 문제가 포함된다. 우리가 기독교와 역사사이의 관계를 논할 때 이 구분은 매우 용이하다. 이로써 세속사와의 관련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II. 사변적 역사철학적 측면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지에 대한 물음은 그 유래가 아주 깊다. 멀리는 구약성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구약성서의 기자들은 조상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 계약을 통해 약속되었다고 기록하였다.

예를 들어 요셉이 증오에 가득찬 형들에 의하여 이방상인에게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파라오의 가장 신임받는 재상이 되었을 때 형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창45:8)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사에 간섭하시는 내용은 심판과 자비였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인에게는 자비로, 애굽인에게는 심판으로 함께한 표본적인 사건이었다.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개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그 절정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며 겪으신 일들은 하나님이 실제로 활동하신 것이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28:20) 하심도 하나님께서 역사에 계속적으로 개입하시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준다. 만약 하나님께서 역사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인간은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

와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도 없는 것이다.

계몽주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기계론적으로만 이해한 나머지 이신론으로 기울었는데 이는 역사에 계속적으로 개입하시며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던 현상이었다. 이런 형편은 오늘날이라 할지라도 크게 변함이 없다. 역사가 움직여지는 동력이 생산양식의 변화에 있다고 하든지, 인간들의 심성에 있다고 하든지, 부르크하르트 처럼 국가와 종교 그리고 문화로 보든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나 개입하심을 배제 시키는 현상이 일반화되어 있다. 현대 역사학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설명을 역사에 대하여 한다는 공헌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서는 결함을 지니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역사에 있어서의 통합성과 일관성은 역사내적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찍이 kuyper 나 Bavinck, Dooyeweerd 등은 우리가 역사의 통합성을 이해하려면 초월적인 관점을 획득해야만 한다고 가르쳤던 것이다. 실제로 역사에서의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그 중요성을 인정하는 시도는 중세시대나 있음직하고 현대에는 축출당하여야만 하는 시도가 아니다. 현대 역사학은 정치사 중심의 역사주의나 사회경제사 중심의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으로부터 많은 시사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사에 대한 만족할 만한 답을 얻어내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20세기의 뛰어난 중세사가였던 Dawson은, 그의 주저인 <역사의 원동력>이라는 제목이 암시하고 있듯이 "종교는 고대와 중세의 모든 문명배후에서 다이나믹한 힘을 발휘했으며 심지어 오늘날의 세속화된 사회에서도 그 힘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서 유능한 아시아 사가이자 미국역사학회 회장을 지낸 바 있던 Latourette 교수는 "이성만 가지고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 신앙



필자소개

필자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공군사관학교 역사학 교관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석사과정 중에 있다.

에 근거한 통찰력을 통해서라야만 비로소 진리의 조명을 받을 수 있다. 오직 기독교적 규범만이 지성의 문을 활짝 열어 진정한 역사이해를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 캠브리지의 유명한 현대사가였던 Butterfield 역시 하나님을 배제시킨 역사학의 부족함을 다음과 같이 비유적으로 말하였다. "역사학의 어느 것도 - 풀 한 잎조차도 - 지금까지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역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끌어들이지 않고도 설명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원의 둘레만을 팸돌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Ⅲ. 비판적 역사철학적 측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역사에 어떻게 개입하시는 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말이 여타의 다른 설명을 배제시킨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앞서 말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이유는 심판과 자비를 베푸시기 위함이다. 그런데 고대나 중세의 역사가들 중에는 이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키고 극단화시켜서 오히려 역사를 왜곡한 실례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 그 한 예가 바로 Eusevius 나 Orosius 같은 '제국신학자들'에게서 나타났다. 그들은 로마제국과 기독교를 밀접한 관련속에 놓고서 역사를 기술하였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아우구스투스 와 그리스도를 연결시켰다고 하면서,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써 신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Eusevius 자신도 때때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의 성공이나 심지어 군사적인 승리까지도 하나님의 덕택으로 돌리도록 이야기 할 때 성 콘스탄티누스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또한 그는 콘스탄티누스가 당시의 많은 황제들과는 대조적으로 장수한 이유를 그의 개종으로 돌리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논리를 따르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속적인 국가가 동일하게 취급됨으로써 로마의 쇠퇴가 곧 교회의 소멸을 의미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에 대해 잘 알려져 있듯이 Augustinus는 세속적인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동일성을 부정하였다. 그가 보기에 교회는 어떤 특정 국가에 얽매어 있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은 태양과 비, 세상, 축복 등을 선인이나 악인에게 다 같이 내리어 주신다고 주장하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강하게 개입되어 있는 왕위나 제국의 획득, 전쟁에서의 승리 등과 심지어 장수라는 선물에도 적용된다고 하였다. Augustinus 에게는 하나님이 크리스찬 왕들에게는 오래 통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박해하던 군주들에게는 갑작스럽

고 참혹한 죽음을 주신다는, 당시에 유행하던 생각은 전혀 쓸모가 없었다. 그렇지만 중세의 연대기 작가들에게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친 저술은 Augustinus 의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라, Orosius 의 'Seven Books of Histories against the Pagans'였다. 그래서 Otto von Freising 같은 유명한 역사가도 서슴없이 신성로마제국을 성스러운 역사의 핵심에다 두었다. 이 점은 동로마제국이나 영국의 경우처럼 황제의 세속권과 종교권이 동일시되는 현상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그렇지만 세상국가와 하나님의 나라가 동일하다거나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인 보응과 축복으로 나타난다는 생각은 구약성서 자체에서도 부정되고 있는 있는 바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국가는 교회를 예표하며, 옴의 경우처럼 반드시 고난이란 최악의 결과로만 나오지는 않기 때문이다. 더우기나 소박하게 현세의 행복과 불행을 하나님과 관련시킨다면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당한 박해를 설명할 길이 없어진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되 그 방법은 단순화 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 진다. Augustinus 는 이 점을 가리켜서 '역사에서의 신비'라고 일컬었다. 그에게는 역사의 신비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신비에 그 기원을 갖고 있었다.

또한 우리가 역사에 대하여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진다고 할 때 기존의 역사적 설명을 모두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신대륙의 발견이 오직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동기에서만 기인하였다고 하면서 여타의 다른 경제적, 정치적 이유를 부정한다면 매우 어설픈 이론이 될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Butterfield 는 인간의 개인적인 자유와 결단력이라는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보려는 차원을 말한다. 예를들어 1차대전 발발에도 정치인들의 이기심과 경솔함이 기여하였다는 설명이다. 두번째로는 역사적 방법이라고 부르는 차원이 있다고 그는 보았다. 이는 역사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동인이나 경향을 과학적으로 시험해보려는 측면을 지칭한다. 1차대전의 경우 당대 정치가들에게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태어나기 훨씬 전의 일들을 살펴봄으로써 대전을 이해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서 시야를 멈추어 버린다면 여타의 다른 세속적인 역사관과 구분이 생기지 않는다. Butterfield 는 이에 덧붙여서 섭리적 측면이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최초로 연주하는 한 편의 관현악곡같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사람은 마치 자기가 그 악보의 작곡자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을 것이며 혹은 자신의 특수한 역할을 지도적인 것으로 연주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는 한 부분만을 연구할 뿐이요, 악보의 다음 페이지에 무엇이 나올지도 알 수 없는 한계 속에 있다는 것이다. 1914년에 발생했던 일들이 1940년대의 관점에서 비로소 밝혀질 수 있듯이, 한 악절의 의미가 단번에 밝혀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섭리에 의해서 이해되는 측면을 간과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의 전 역사가 맹목적인 우연의 산물이라고 주장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Butterfield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유연한 자세를 취하였다. 그에게는 마르크스주의자들 처럼 철저히 개인을 사상시키는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자로서의 개인이 역사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활동하며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질 줄도 알았다. 그렇지만 그는 이러한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섭리와 전혀 동떨어져 있다고도 볼 수는 없는 것으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여 이 양자의 공존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인은 전쟁이나 혁명배후의 깊은 과정을 고찰하여 보고 그것들을 법칙으로 분류해보는 과학적인 유의 역사를 강조하여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편협된 섭리사관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마치 Dooyeweerd가 역사적 인과탐구의 구조내에 있는 '목적의 다양성'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요소하고 간주하였던 것과 일맥상통한다고도 하겠다.

IV.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 기독교와 역사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그 접근이 매우 절박한 과제임을 알 수가 있겠다. 이는 현대 역사학의 발전과정과 오늘날의 분석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깊은 탐구가 된다. 사실 Collingwood가 지적하였듯이 서양에 있어서의 역사학은 그리스-로마시대가 아니라 기독교와 함께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근대역사학의 성립에 큰 영향을 끼친 랑케 역시 단순한 사실탐구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모든 현상 뒤에다가 '거룩한 상형문자' 즉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의지를 두었다. 그러나 그는 역사의 원동력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인하지는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시도를 철저히 달성하지는 못하고 역사주의의 성립에만 기여하게 되었다. 20세기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오늘날 우리사회의 역사의식의 상당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마르크스주의적 역사해석 역시 Russell에 따르면 부족품만 달랐지 기독교사관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Lowith의 지적대로 서구의 근대사관이란 그

열매만 달랐지 그 뿌리는 여전히 기독교에 박고 있는 역설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유수한 학자들이 기독교 사관을 논한다는 사실은 조금도 뒤흔적인 현상이 아니다. 오히려 역사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은 원래의 모습을 구현하려는 시도라고도 볼 수 있다. 또 현대사회의 구조를 분석할 때 물질적 진보만으로도거나 집단적인 심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을 탐구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데 기독교적 역사관은 여타의 세속적 역사관 보다 유리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역사적 사건 뒤에는 섭리가 있다는 점이라든지, 역사는 일직선적으로 진행되면서 종말을 향한다는 설명에는 오히려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적 역사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마치 열왕기서를 쓰는 것과 같은 자세를 취하여서는 안되고 마음을 넓혀서 다양한 견해를 포용할 수도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 역사학이 지니고 있는 앞으로의 과제는 역사서술 속에 기독교적인 가치를 공고히 유지하면서도 독단으로 흐르지 않는 가능성을 발견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참고 서적

1. Bebbington, D.W., Patterns in History, IVP, 1979
2. Butterfield, H., Christianity and History (주재용 역, 기독교화 역사, 대한기독교출판사) 1950
3. Butterfield, H., Writings on Christianity and History, (김상신 역, 크리스찬과 역사해석, 대한기독교출판사) Oxford Univ. Press, 1979
4. Dawson, c., Dynamics of World History, ILL: Sherwood Sugden Company, 1978
5. Dawson, C., Religion and Culture, Sheed & Ward, 1949
6. Knudsen, R.D., History,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1969
7. Marsden, G.(ed), A Christian View of History? (홍치모 역, 기독교와 역사이해, 충신대출판부) Eerdmans, 1975
8. McIntire, C.T.(ed), God, History, and Historians,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77
9. McIntire, C.T., The Focus of Historical Study A Christian View, Institute for Christian Studies, 1980
10. Reid, W.S., Covenant and Kingdom: A Christian View of History, Potchefstroomse, 1976
11. Smit, M.C., "The divine Mystery in History",

Free Univ. Quarterly, 1955

12. 기독교와 문화연구모임편, 지성과 신앙 속편I, 성광문화사, 1984

*질의응답

질1: 19세기 후반의 미국에는 아메리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국가라는 생각이 퍼져있었다. 그리고 요즈음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선민사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기독교 역사학적인 관점에서 이 점에 대해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답: 우리나라를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국가라고 믿는 주장에는 선교적인 동기가 다분히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지금 교회의 성장이 급속히 일어나고 열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음은 다른 나라에서 흔하게 보이는 현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활동을 같이 하는 우리민족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많은 지역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적인 생활방식을 전해주는 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본원칙에는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다만 정도가 지나쳐서 우리나라를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은 의미의 선민으로 보는 데는 우리가 따르지 않을 까 한다. 우리가 아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제도나 국가와 동일시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선민사상을 극단적으로 주장한다면, 다른 나라를 동등하게 보지 않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민족적으로 자만심을 갖게 되어 오히려 복음증거에도 방해가 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19세기 후반의 미국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국가라는 생각은 선교적인 의미에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질2: 우리나라의 통일문제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일과 비유하려는 경향이 있다. 과연 이런 생각이 기독교 역사학의 견지에서 어떻게 수용되어야 하는가?

답: 금년 대한 예수교장로회교육국에서 발간한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교재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분단상황을 우리민족의 분단상황과 병렬적인 관계에 놓고 보는 시각이 있다. 이 문제는 어느 누구도 쉽게 답변할 수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런 관점에서 서서 논리를 전개하는 분들은 우리가 처한 민족적 상황에서 성서를 해석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는 이미 70년대 초반에 김정준 박사에 의해서 제기되었던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하지만 신앙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해본다면 우리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다. 발표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할 때 그 고백속에는 우리의 이성적 판단이 신앙적 양심과 배치될 때는 신앙적 방향을 선택하겠다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지금의 논의에서는 이 점이 생략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시고 그분의 우주적 경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다가 하나님을 맞추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우리의 통일을 이스라엘과 견주려는 사람들은 성서에서만이 아니라 어떤 사상에서도 자기들의 논리에 부합한 이론을 받아들일 자세가 갖추어져 있다. 따라서 문제는 "상황"을 앞에 두느냐 "성서"를 앞에 두느냐 이다. 우리의 입장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리라고 본다.